

# LENS

P R I M A

렌즈 모의고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렌즈 모의고사 해설 보는 법>

0

(★의 개수 : 난이도, 중요도 종합) — 문제의 주제

○ '문제 풀이의 키워드'

- 사상가 혹은 사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

**cīma** (클리마) : '(사회.시대의) 풍조 또는 경향'이라는 뜻의 라틴어.

→ 요즘 출제 경향, 트렌드, 참조할만한 문제

**inténtus** (인텐투스) : '의도'라는 뜻의 라틴어.

→ 문제 출제 의도 (출제자의 의도)

**proféc̄tio** (프로펙티오) : '유래, 기원, 출처'라는 뜻의 라틴어.

→ 문제 출제의 영감을 얻은 곳, 출처

**p̄rimus** (프리무스) : '첫째'라는 뜻의 라틴어.

→ 풀이에 앞서 문제에 등장하는 사상가 혹은 사상에 대한 설명, 문제에서 묻는 것 설명

**secúndus** (세쿤두스) : '둘째'라는 뜻의 라틴어.

→ 정답인 선지가 정답인 이유 설명

**ānāl̄ysis** (아날리시스) : '분해, 분석, 해석'이라는 뜻의 라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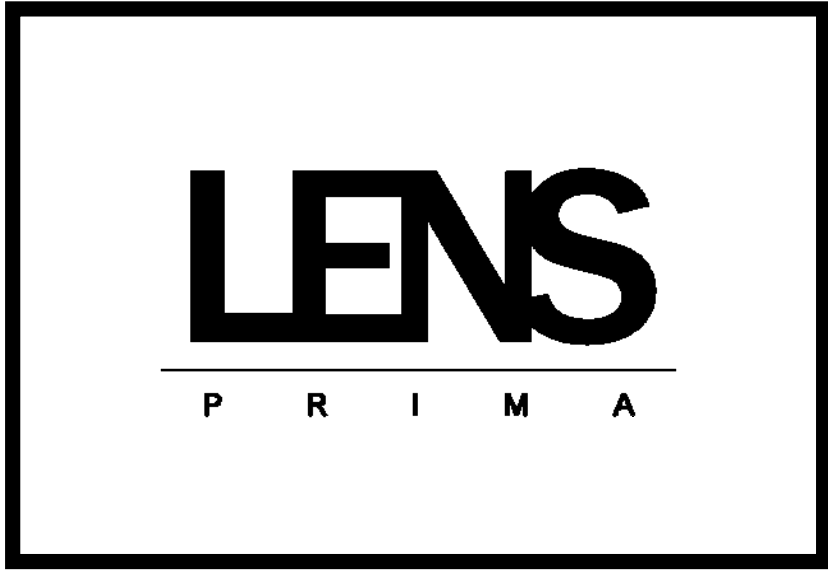
→ 정답이 아닌 선지가 정답이 아닌 이유 설명

**cáutiō** (카우티오) : '주의, 조심'이라는 뜻의 라틴어.

→ 문제 풀이에서 조심해야 할 점 설명

**dóc̄eō** (도체오) : '가르치다, 일러주다'라는 뜻의 라틴어.

→ 그냥 알아두면 좋은 팁 혹은 이야기



## ATOM DOCS 맛보기 파일

### 참고사항 :

1. 작년 시행 평가원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그를 최대한 따랐습니다.
2. 모든 문제는 평가원 기출과 올해 EBS에 수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오름?)
3. 문제 수준?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 기출이나 EBS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선지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분석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정답 및 해설>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답	⑤	③	③	④	②	①	②	③	②	⑤	②	⑤	②	③	④	⑤	⑤	①	④	③

# 1

★★★★

— 키르케고르의 인간관

○ '자기가 진리를 인정',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 주체성을 강조한 실존주의 사상가 키르케고르

**clīma** **intētus**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번 (다산의 인간관), 2015학년도 수능 1번 (원효의 삶의 태도),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번 (쇼펜하우어의 인간관)

-작년,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번 문항은 예화를 던져주고 그 속에서 인간의 특성(대부분 윤리적 존재가 답)을 묻는 기존의 뻘한 유형에서 탈피하여, 사상가를 도입해 만화로써 인간의 특성을 찾고자 한 평가원의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이 문제의 연원은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문항이 발전한 것이 바로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1번 문항의 유형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하나의 예고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수능 1번과 같은 문항입니다. 이 문항에서는 기존 유형의 손길, 즉, 인간관을 묻는 것에서 벗어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사상가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학생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문제가 바로 이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평가원에서 출제할만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볼만한, 바람직한 인간관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사상가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참고로, 작년 평가원(2015학년도)에는 실존주의 사상가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기획하면서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잘 안 나오는 사상을 가지고 문제를 냈으니, 요즘 문제 트렌드와 맞지 않는 사상을 묻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존주의는 작년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 출제되었던, '사상가를 이용한 인간관, 또는 삶의 태도 묻기'라는 새로운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요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용해 문제를 제작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 또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

**profēctio**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사르트르

**prīmus** 키르케고르의 인간관 찾기

키르케고르는 현대 과학 기술 문명과 전쟁 속에서 개인의 존재 의미가 상실되어가는 문제에 주목하여 각 개인의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강조한 실존주의의 사상가로서,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 앞에서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개인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제는 키르케고르가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사상가 중 유일하게 유신론적 입장을 보여주는 사상가입니다. 실제로, 무신론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는 사르트르와 비교되었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러한 입장을 배제하고 푸셔도 무관한 문제였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관 고르기나 마찬가지로 뜻입니다.)

**secūndus** ⑤ 실존주의 사상가의 기본 입장입니다.

### ānālysis

- ① 키르케고르가 주장하는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 ② 실존주의 사상가인 키르케고르와 관련이 없는 선지입니다. (다른 사상가의 입장에도 해당되지 않는 떡밥 선지입니다. 이런 선지는 문제와 관련 없는 사상들의 입장을 섞어 뭔가 그럴듯해 보이게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이 선지는 2015학년도 9월 모의고사 1번 문항(정약용의 인간관 찾기)의 ⑤ 선지입니다.) 이 선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입장을 굳이 따진다면, 이 선지는 두 사상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것은 만물에 이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는 성리학의 격물치

지(格物致知) 정도에 준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한다, 라는 것은 도가에서 주장하는 물아일체(物我一體) 정도에 준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기서 '준한다.' 라는 식의 완곡적 표현을 한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키르케고르는 반(反)이성주의를 표방하는 실존주의 사상가로서 삶의 본질은 보편적인 이성이 아닌,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내리는 판단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 이 선지는 실존주의 사상가 사르트르의 기출 문제를 토대로 제가 직접 제작한 선지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주체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칼(刀)과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2012 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참조) 사르트르는, 칼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정해져서 그 목적에 따라 사용이 되지만, 인간은 칼처럼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정해져서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 순간 개인이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살아갈지 정해나간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칼에게는 본질(물건을 베거나 썰거나 깎는 데 쓴다)이 구성되어있지만, 인간에게는 본질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④ 선지는 '구성된 본질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인간은, 앞서 말했듯이, 본질이 정해져 있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본질을 만들어 나가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인간관에 대한 설명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간단 해설>

2. 갑은 민주 사회주의, 을은 수정 자본주의.
3. 갑은 원효, 을은 지눌.
4. 담론 윤리 사상가 하버마스.
5. 칸트의 의무론.
6. 불교의 연기설.
7. 책임 윤리 사상가 요나스. 비판의 대상은 베이컨적 프로그램. ㉠에는 베이컨적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함.
8. 갑은 순자의 성악설, 을은 맹자의 성선설.
9. 다산의 성기호설. 덕은 후천적으로 형성됨.
10. 회의주의적 사고를 보여주었던 소피스트 고르기아스와 그에 반(反)하는 소크라테스.
11. EBS 문제 '거의' 그대로 냄. (EBS 문제 중에 제일 '고퀄'이라고 생각.) 너무 완벽한 문제.
12.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통한 결과 도출을 강조.
13. 갑은 원불교, 을은 동학, 병은 증산교.
14. 작년에 나온 이념 문제 변형. 갑은 세계 시민주의, 을은 민족주의.
15. 갑은 양명, 을은 성리학. (힉 속았징?)
16. 갑은 공동체주의, 을은 개인주의(자유주의).
17. 스피노자.
18. 도가, 장자. (예비 시행 오답률 2위)
19. 갑은 규칙 공리주의, 을은 에피쿠로스학파. (예비 시행 오답률 1위)
20. 갑은 쇼펜하우어, 을은 흄. 둘 다 감정을 중시.

⊙ 지금 자료를 구매하시면 1번 문항의 해설과 같은, 최신 출제 경향 분석 자료가 포함된 다른 모든 문항들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ttp://atom.ac/docs/>

⊙ 본 해설은 총 1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